

# Hong Kong

## 오랜 역사만큼이나 화장실도 예술

- 홍콩, 페닌슐라 호텔 화장실



홍콩은 다양하게 표현되는 경이로운 세계다.  
세계 3대 금융도시에 세계 3위의 영화산업의 본거지로 여러문화가 조화를 이룬 홍콩은  
연중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로 최고의 관광지 중의 하나로  
뽐낼 수 있다.

여기는 홍콩.  
홍콩의 침사초이 거리를 건들건들 걸어간다.  
거리의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북적대고, 그  
속에서는「메이드 인 홍콩」롤렉스 손목시계부터  
가짜 소니의 6밀리 첨단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가 단돈 50만원에 팔려 나가고 있다.  
큰 길거리에서는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싼 가격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홍콩, 침사초이에서 바라보는 홍콩섬의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가전제품 면세점이 늘어선 침사초이 거리를  
걸어본다. 중국인들은 빨간색을 유난히  
좋아해서인지, 거리의 간판은 온통 빨간색  
일색이다. 그 중에 서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간판은 「야총회(夜總會)」이다. 처음 홍콩에  
갔을 때 홍콩사람들은 웬 총회를 그렇게 밤에  
많이 하나하고 궁금해 했었다.  
실상을 알고보니 야총회는 총회 모임장소가  
아니라 나이트클럽이었다.  
재미있는 홍콩, 먹을거리가 많은 홍콩.  
영국령 홍콩은 홍콩섬과 구룡반도로 합쳐진

자유무역 중계기지였지만, 1997년 7월 1일부로  
중국에 편입되었다.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던 날,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치뤘고, 중국 수뇌부가  
온통 들뜬 마음으로 하루종일 행사를 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봤던 기억이 난다.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여전히  
홍콩은 활기차다.  
홍콩은 본래인구가 7천명 밖에 안되던 작은  
어촌이었다. 그러던 것이 아편전쟁(1840~42)  
에 의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했다.  
아편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  
이었다.  
그 전쟁의 실상은 영국인들이 중국의 차(茶)와  
비단, 도자기를 사가는데 너무 많은 금과 은이  
들자, 그걸 탐감해보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바로 아편전쟁이다. 결국 그 아편은 청국인의  
정신을 좀 먹고, 더 나아가서는 청국의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했다.  
결국 보다못한 청국 정부는 흠차대신 임칙제



흑태죽

(林則徐)를 보냈고, 그는 무려 1425톤이나 되는 아편을 빼앗아 바다에 흘려보냈다. 영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벌인 전쟁이 바로 아편전쟁이다. 그 결과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때부터 홍콩은 그야말로 영국의 도시로 발전해갔다. 홍콩 총독부 건물이 세워지고, 해발 552미터 홍콩섬 산 정상에는 피크트램이라 불리는 산악용 열차가 힘차게 기어오른다.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는 영국식 대리석 건물들, 아직도 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영국 사람들.

새벽 6시  
호텔에서 일어났다.  
나그네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난 것은 순전히 죽을 먹기 위해서이다. 침사초이의 골목 골목마다에는 새벽 5시반이면 미전가(米傳家:죽집)들이 문을 연다. 맛있는 홍콩의 죽.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김벌리

로드를 버리고 네이단로드 쪽으로 접어든다. 오늘 아침엔 뭘 먹을 것인가. 곳곳에 알 전구를 켜놓고 죽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있는가 하면, 내부시설이 아주 화려한 빌딩 1층의 죽집도 있다. 오리알을 넣은 피탕죽을 먹을 것인가. 해장용으로 파는 숙주나물 죽을 먹을 것인가. 「삼만의죽(蔘滿意粥)」이라는 상호가 붙은 죽집에 들어섰다. 빌딩1층의 깔끔한 식당이다. 피탕죽이 가장 인기인데, 그건 여러번 먹어 보았다. 뭘 먹을 것인가. 메뉴판에서 흑태죽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흑태죽이라면 검은 콩죽이다. 어떤 음식인가 궁금해서 한 그릇 시켰다. 음식이 나왔는데, 마치 시커먼 먹물같다. 한 숟갈 떠먹어보니 달긴 한데, 그야말로 먹물을 먹는 기분이다. 간신히 몇 숟갈 떠먹었다. 그러나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하는 수 없이 메뉴판을 다시 보았다. 인삼죽이 있다. 그리고 보니 이 집의 상호가 바로 인삼이



▲ 중국인들은 빨간색을 유난히 좋아인지 거리의 간판도 온통 빨간색 일색이다.

가득한 죽집이라는 뜻이다. 이 집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이라는 얘기이다.

한 그릇 시켰다.

인삼은 역시 우리 체질에 맞는다. 맛있게 한 그릇을 먹었다. 주인이 인삼죽을 맛있게 먹는 내 모습을 보더니 서비스라며 피탕죽 한 그릇을 가지고 온다.

웬 서비스? 하고 물었더니 흑태죽을 다 남기는 것을 보고 미안해서 주는 것이라 한다.

고마운 마음에 그것도 한 그릇 먹었다.

다 먹고 나니 새벽부터 배가 땡땡하게 불러왔다.

죽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서 뭘 볼 것인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으윽, 갑자기 배가 아프다.



아침부터 죽을 세그릇 씹이나 퍼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 눈에 불을 켜고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화장실에 좀 인색하다.

하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호텔로 뛰어 들어갔다. 뛰어 들어가면서 보니 대리석에 빼까번쩍한 샹들리에에, 예사 호텔이 아니다. 화장실에 들어섰다.

향수냄새가 은은하다. 게다가 변기며, 조명이며, 문짝고리가 모두 최고급 수준이다.

도무지 화장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으리으리하다. 볼 일을 봤다.

바닥에 물 한방울 떨어진 곳이 없고, 화장지도 최고급이다.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다.

볼일을 보고 1층 로비로 나왔다.

고객에게 문을 열어주는 프론트맨이 투숙객이 아닌데도 깡뚫하다. 손님들에게 서비스하는 차는 으악, 그 유명한 롤스로이스이다.

바깥에서 호텔이름을 보았다.

호텔 페닌슐러.

그제서야 알았다.

호텔 페닌슐러라면 홍콩 제일의 호텔이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호텔이다. 영국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홍콩에 왔을 때 투숙한다는 그 호텔이다.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지어진 호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텔, 페닌슐러.

그러면 그렇지.

이 정도되니까 화장실이 예술인거다.

아! 우리나라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 홍 하 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 1955년 서울출생
- 중앙대 문예창작과 졸
- '90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 '98 방송위원회 우수기획상(금강조 1400년의 약속 어떻게 지켰나)
- 작품 : <명작의 무대>, <명시기행>, <세계의 교육, 그 현장을 가다>, <그때를 아십니까>등 다큐멘터리 270여편
- 저서 : <일본뿔골목 옛보기>, <열두걸림 기모노의 속사정> 등